

전남 구제역 차단 ‘설연휴 전쟁’

최장 9일 방역 총력...축산농 방문·해외여행 자제해야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최장 9일에 이르는 설 연휴가 ‘청정’ 전남으로 확산 여부를 판가름 짓는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6면〉

정부도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명절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구제역 확산 차단에 온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고, 전남도 방역당국도 이 기간 차단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맹 장관은 “전국에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가축이 백신을 맞고 나서 면역력을 형성하기까지가 방역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설 연휴는 구제역 확산 차단에 중대 고비가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맹 장관은 “설 연휴 고향에 가더라도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축산농가와 구제역 발생지역을 가야 할 때에는 차량과 방문자의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55명의 축산업 종사자들이 구제역 위험국가 등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여행 자제를 요청했다.

전남도도 ‘설 연휴 구제역 확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귀향객 및 축산농가를 상대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차단 방역 활동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구제역 방역 5대 수칙

- 1 농장 안팎 매일 소독
- 2 외부인 농가 출입 통제
- 3 농장주 모임·해외여행 자제
- 4 농장주 입회하 소독후 출입
- 5 친환경 사육환경 조성

도내 모든 소(54만9000마리)와 돼지 ‘종돈’(種豚·10만5000마리)에 대한 예방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모돈’(母豚) 8만6000마리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접종 뒤 2주가량 걸리는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하면 자칫 민족 대이동을 통해 구제역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과 소독은 한계가 있는 만큼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홍보 및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축산농가를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의해 구제역이 전염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읍·면·동별로 ‘축산농가 방문·접근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27일 22개 부서장·부근수 영상회의를 통해 도내 다중집합시설인 버스터미널·역·여객터미널 등에 발판소독기를 설치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시·도간 경계 및 도내 310여개에 이르는 이동 통제 초소에 대한 차단 방역에도 온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기간 동안 매일 1499명의 방역 인원을 투입해 고속도로와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와 차량이 움직일 만한 셋길에 대한 차단 방역에 주력하기로 했다.



광주와 전남·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구제역 피해가 확산하면서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오후 광주역 역무원이 승객들이 오가는 역사 출입구 발판에 소독액을 뿌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편, 전남도는 13만8000마리 분량의 구제역 예방백신을 27일 정부로부터 공급받아 경남과 접경지역인 광양 양돈농가의 사육돼지 1만마리와 돼

지 밀집 사육지역인 무안군 관내 92농가 13만8000마리를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판단했다”며 “집회를 구제역이 잠잠해지는 시점으로 연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산하 운수노조 금호고속회와 함께 29일 광주시 서구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전국 버스운수노조원과 시민사회단체 등 5000여 명이 연대하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 지도부 과학벨트 갈등 증폭

호남출신 최고위원들 양보론 반발 회의 대거 불참

여권선 총청-대구경북-광주전남 삼각벨트 거론

과학벨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지도부와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과학벨트를 기능적으로 분류,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삼각벨트’로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청주 충북도당 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벨트 입지 문제와 관련, ‘호남 양보론’과 충청권 유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라는 대선 당시의 공약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유치돼야 한다는) 당론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춘, 이인영 최고위원 등도 과학벨트 입지 문제와 관련, 호남 양보론 등을 직설적으로 거론하며 충청권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 정동영 최고위원, 정세균 최고위원 등 호남지역 인사들이 대거 불참,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주장하는 지도부의 대오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정치권도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강문태 광주시장은 지난 25일 김창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을 잇달아 만나 과학벨트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과학벨트 공동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도 이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만나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유리한 광주·전남의 입지 여건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광세를 보였던 전남 국회의원들도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민주당과 전남도의 당정협의에서 전남 국회의원들은 과학벨트의 광주·전남 유치를 강력 주장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 국회의원들은 설 연휴 직후, 회동을 갖고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실행행사 방안 등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여권 핵심 관계자는 “특정 지역으로 과학벨트 입지가 정해진다면 사회적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과학·기술 기반이 갖춰져 있는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충청권에 삼각 과학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여권 내부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박진현 선임기자

광주문화재단, 무엇을 할 것인가

박진현 선임기자, 美 문화리더 연세 화상 인터뷰 ▶12면

제3편 뉴욕링컨센터 스캇 놀 브랜드 대표



브랜드 대표

2014 수능 국·영·수 수준별 응시

교과부 개편안 발표...선택과목은 2개로 줄여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수학·영어 과목 수준별 시험이 도입되고 선택과목 수가 최대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든다. 수능 연 2회 복수시험은 백지화 됐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올해 고 1 신입생들이 치르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7면〉 수능별 시험을 위해 기본영역인 언어·수리·외국어를 국어·수학·영어로 바꿔 두 가지 수준인 A형과 B형 시험을 제공한다.

B형은 현행 수능 수준이며 A형은

현행 수능보다 범위를 줄여 쉽게 출제하는 유형이다.

수험생은 진로와 모집단위에 따라 A·B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할 수 있고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국어 듣기평가(5문항)는 지필로 대체되고, 사회·과학탐구의 경우 최대 선택과목 수가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된다. 11과목 중 3과목까지 보던 사회탐구는 10과목 중 2과목을, 8과목 중 3과목을 고르던 과학탐구는 8과목 중 2과목을 각각 선택하게 된다. 직업탐구 영역은 17개 과목을 5개로

통합하고 1과목만 선택하게 했다. 제2외국어·한문은 수능에서 빼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는 국·영·수 수준별 시험을 치를 경우 상위권 대학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B형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국·영·수 편중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신묘년은 **히딩크 호텔**과 함께 하세요

패키지 이벤트

객실 + 조식(2인) + 사우나(2인) **w70,000**
웨딩 및 돌잔치 **50인 이상 가능**(매주지정일)
철수 및 각종 세미나 환영(대 중 소 연회장 원배)
행사 메뉴 : 양식, 한식(전골·탕), 뷔페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 062)227-8500 | www.hiddinkhotel.com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친환경다원
작설차
고품질녹차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T.222-2902.3973

감능 Set

우전감로

다담 Set

감사 Set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外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的 차만 납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지정번호 : 제74호
상 명 : 차 명제(한국차)
생년월일 : 1951년 9월 25일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번지
지정분야 : 전통차
지정 품목 : 녹차, 홍차, 차소, 차소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제4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 사항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합니다.

2009년 2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7007-8